어린이집의 재원 시간과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관계

Correlations between the Amount of Time Spent in Child Care Centers and Children's Daily Stress Levels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수료 김 정 화
교 수 이 재 연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nd Stud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issertator : Jeong Wha Kim
Professor : Jae Yeon Lee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 방법
Ⅲ. 결과 분석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potential correlation between the amount of time children spent in child care centers and their daily stress level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5 children (aged 2~5) who attended a child care center in Seoul. Children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and tested using 23 picture cards which describe a range of stressful situ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children's age led t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stress level. The age at which the children first entered the child care center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their stress level. However, the times spent in child care center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tress. The longer time the child spent in the center, the higher the degree of stress they encountered.

주제어(Key Words) : 일상적 스트레스(daily stress), 어린이집(child care centers), 재원시간(time spent in child care centers)

Corresponding Author : Jeong Wha Kim,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nd Stud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Juyeon Bldg. 5F, Seogye-dong, Yongsan-gu, Seoul, 140-710, Korea Tel: +82-2-6901-0161 Fax: +82-2-6901-0193 E-mail: whak@kcpi.or.kr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와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 변화는 자녀 양육에 대한 가정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보육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책임을 더욱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의 양적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1990년 1,919개소였던 어린이집이 2010년 12월 말에는 3만 8천 21개소로 증가하였다. 또한 0세부터 만5세까지 전체 영유아 270만 명 중 128만 명 이상의 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를 받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1a). 이로써 전체 영유아의 약 46% 이상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이 자녀양육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나누며, 보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부모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어린이집의 양적인 확충 이후 높아지는 보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보육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에 따라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획일적으로 제공되어졌던 보육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변화하여 다양한 부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1b).

수요자에 대한 맞춤 지원은 보육서비스의 내용 뿐 아니라 보육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근로형태가 더욱 다양화되어 일정한 업무시간에 맞추어 일해야 하는 직장인,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직장인, 새벽까지 근무해야 하는 상인들,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등과 같이 하루 중 어느 시간에나 일이 가능한 다양한 근로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배성희, 2009). 따라서 보육시간도 근로시간의 다양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시간유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의 근로시간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이 종일제 이외의 시간 연장 보육과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보건복지부, 2011c) 등으로 운영시간이 점차 연장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혼 여성의 고용 지속을 위한 영아보육 지원정책으로 보육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로써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시기는 더 빨라지게 되고 재원 하는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되었다.

어린 영아시기부터 보육을 경험하게 되고 보육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영유아의 건강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보육 본래의 목적 보다는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쪽에 무게의 중심을 두는 것이다. 보육의 내용과 시간은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보육의 직접 대상인 영유아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 따라 고용과 근로의 근본적인 해결 노력 없이 부모의 근로환경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보육의 내용과 시간이 맞춰지고 만다면 영유아들은 더 어린 연령부터 보다 더 긴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야만 할 것이다.

보육경험의 저 연령화와 보육시간의 장시간화로 인해 영유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영유아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기분 나쁜 일, 속상한 일, 놀랐던 일로서 어느 유아에게서나 흔히 있는 일이다(Parfenoff & Jose, 1989). 일상적 스트레스는 정도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불안감과 좌절감 그리고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일상적 스트레스를 어린 연령부터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경우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켜 영유아의 발달상 많은 문제를 보일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Marion, 1995; Sher, 2003).

영유아의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양적 · 질적으로 제한 받을 때 일상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윤영현, 2006; 이희선, 1994).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유아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박성혜, 2002) 부모와 떨어져서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는 유아의 경우 스트레스 양은 더 증가하게 된다(김수미, 이숙, 2007). 이는 영유아기에 양육자인 부모와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이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영유아가 가정에 있을 때 보다 어린이집에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도 높게 나타났다(Watamura, Donzella, Alwin, & Gunnar, 2003). 이는 어린이집이 가정에서와 달리 하루 일과 속에서 영유아가 지켜야 하는 규칙과 규율이 있기 때문이다. 유아 교육기관의 일과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교육 내용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유아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될 것이다(이윤경, 1992; Burts, Hart, Charlesworth, & Kirk, 1990). 또한 어린 영아기 부터 보육경험을 한 영유아들은 부모와의 애착형성과 사회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김숙령, 1997). NICHD(2003)의 보고에 의하면 더 많은 보육 경험이 영유아들의 부적응, 공격성,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따라서도 영유아의 코티솔 수준 즉, 스트레스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전에 비해 오후에 코티솔의 수준이 질적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73%, 질적으로 보통 수준의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수준이 낮은 어린이집의 영유아가 질적 수준이 높은 어린이집의 영유아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고, 보육의 질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상승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Sims, Guilfoyle, & Parry, 2006; Watamura, 2006).

영유아가 느끼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뿐 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영유아들은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Greenspan, 2003, NICHD, 2000).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에 따라 반일제 프로그램 보다는 종일제 프로그램의 유아들이 스트레스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그리고 종일제 프로그램보다는 시간 연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김혜경, 류왕호, 2006; 박화윤, 안라리, 하양승, 1998).

종합해보면 영유아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문제행동과 부적응 등을 보고하고 있고, 그 원인의 하나로 보육의 질과 관련 있는 보육 시간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간이 영유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는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에 맞추어 특정 시간대별로 관찰된 스트레스 행동의 빈도를 조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 보다는 어린이집의 운영시간과 프로그램에 따른 스트레스의 비교에 그쳐 영유아마다 어린이집에서 보내고 있는 누적된 시간의 양에 따라 영유아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영유아가 언제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해서 하루 중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고, 현재까지 다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와 그에 따라 영유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아 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특성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실제 재원 시간에 따라 영유아가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알아보고자 한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실제 재원시간은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한 연령과 어린이집에서 하루 중 보내는 재원시간 그리고 재원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다양한 수요자의 보육 요구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보건복지부, 2011b),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재원 시간은 영유아가 속해있는 가정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시간의 양적인 측면과 일상적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에 따라 영유아가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 박경자, 최정윤, 권연희와 김지현(2007)은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는 영유아의 건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보육시간이 길어질 수 록 영유아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일상에서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경험은 영유아의 발달상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재원시간에 따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를 미리 예측하고, 일상적 스트레스의 경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의 긍정적인 정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어린이집 운영의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위해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영유아의 연령과 성별, 출생순위, 부모의 동거여부에 따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어린이집에 입소한 연령에 따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는 어떠한가?

셋째, 어린이집에 하루 중 재원 하는 시간에 따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는 어떠한가?

넷째, 어린이집에 재원 한 기간에 따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2세부터 만5세까지의 영유아 165명이다. 대상 영유아들은 서울시내 Y구내에 서로 인접한 동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3개소는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소, 법인어린이집이 1개소로 모두 정부지원 기관이며 국가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인증기준을 통과한 평가인증 어린이집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각각 52명, 84명, 법인어린이집의 정원은 84명이고, 만2세부터 만5세까지 영유아의 수는 각각 42명, 69명, 69명으로 총 180명이다. 3개소 어린이집의 만2세부터 만5세까지의 영유아 모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한 개별검사를 실시하였고 영유아의 담임교사가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개별검사를 완료 하지 못한 15명은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연구대상 영유아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영유아의 성별은 총 165명 중 남아가 86명(52.1%), 여아가 79명(47.9%)이었다. 연령별 구성은 만2세 영아 27명(16.4%), 만3

세 유아 45명(27.3%), 만4세 유아 29명(17.6%), 만5세 유아 64명(38.8%)이었다. 남아는 만3세 (17.6%)와 만5세(16.4%)의 순으로 많았고, 여아는 만5세(22.4%)가 가장 많았다. 그밖에 연구대상의 특성 중 영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78명(47.3%), 둘째가 77명(46.7%)로 나타났으며 출생순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형제 중 둘째가 46명(27.9%), 여아는 첫째가 42명(25.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가족동거 형태는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경우가 141명(85.5%)이었다.

〈표 1〉 연구대상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

(*N* = 165)

구분		남아	여아	전체
연령	만2세	14(8.5)	13(7.9)	27(16.4)
	만3세	29(17.6)	16(9.7)	45(27.3)
	만4세	16(9.7)	13(7.9)	29(17.6)
	만5세	27(16.4)	37(22.4)	64(38.8)
출생순위	첫 째	36(21.8)	42(25.5)	78(47.3)
	둘 째	46(27.9)	31(18.8)	77(46.7)
	셋 째	4(2.4)	6(3.6)	10(6.1)
부모의 동거여부	부모모두	72(43.6)	69(41.8)	141(85.5)
	부또는모	11(6.7)	9(5.5)	20(12.1)
	기타	3(1.8)	1(0.6)	4(2.4)
합	계	86(52.1)	79(47.9)	165(100)

연구대상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입소 연령과 하루 중 재원시간 그리고 재원기간은 〈표 2〉와 같다. 입소연령은 생후 2개월부터 68월까지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평균 입소 연령은 만2세 영아 25.4개월(*SD* = 11.6), 만3세 유아 29.3개월(*SD* = 11.0), 만4세 유아 45.6개월(*SD* = 9.3), 만5세 유아 34.8개월(*SD* = 16.0)이다. 어린이집에 입소한 연령은 가장 어린 연령인 만2세 영아가 다른 연령의 유아들보다 더 낮은 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하루 중 재원시간은 5시간부터 13시간까지로 나타났고 하루 중 재원 하는 평균 시간은 만2세 영아 8.6시간(*SD* = 1.7), 만3세 유아 8.6시간(*SD* = 11.8), 만4세 유아 8.9시간(*SD* = 1.8), 만5세 유아 7.6시간(*SD* = 1.9)이었다. 어린이집에 하루 중 재원 하는 시간은 연령이 높은 만5세 유아가 다른 연령의 영유아보다 재원시간이 짧았다. 어린이집에 재원 한 기간은 영유아에 따라 1개월부터 67개월까지 분포했으며, 만2세 영아 17.5개월(*SD* = 10.8), 만3세 유아 22.6개월(*SD* = 10.9), 만4세 유아 21.0개월(*SD* = 8.1), 만5세 유아 36.9개월(*SD* = 14.2)이었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재 한 기간은 연령이 높은 만5세 유아가 다른 연령의 영유아보다 오랜 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영유아의 연령별 입소연령, 재원시간, 재원기간 비교

(*N* = 165)

구분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M(*SD*)	*M*(*SD*)	*M*(*SD*)	*M*(*SD*)
입소연령 (개월)	25.4 (11.6)	29.3 (11.0)	45.6 (9.3)	34.8 (16.0)
재원시간 (시간)	8.6 (1.7)	8.6 (1.8)	8.9 (1.8)	7.6 (1.9)
재원기간 (개월)	17.5 (10.8)	22.6 (10.9)	21.0 (8.1)	36.9 (14.2)

2. 연구 도구 및 절차

영유아가 어린이집 재원시간에 따라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한국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검사도구(염현경, 1998)를 사용하였다. 검사 도구는 일상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총 23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유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상황이 그림카드로 제작되어 있으며 남아용과 여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상황 23가지 사례는 〈표 3〉과 같다.

〈표 3〉 유아의 일상적 23가지 스트레스 상황

문항	일상적 스트레스 상황
1	친구가 때리거나 꼬집을 때
2	엄마 · 아빠께 야단을 맞을 때
3	엄마 · 아빠께 매 맞을 때
4	선생님께 야단맞을 때
5	친구와 싸울 때
6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주지 않을 때(예: 장난감, 과자, 옷, 신발 등)
7	집에 혼자 있을 때
8	어두운 곳에 있을 때
9	친구들이 놀릴 때
10	가족이 내가 좋아하는 TV프로(예: 만화)를 못 보게 하거나 보고 있는 채널을 바꿀 때
11	밖에서 놀고 싶은데 못나가게 할 때
12	친구나 동생이 장난감을 빼앗아 갈 때
13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거나 먹을 수 없을 때
14	내 얘기를 엄마나 아빠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때
15	엄마나 아빠가 함께 놀아주지 않을 때
16	잘못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여 엄마 · 아빠한테 혼날 것 같을 때
17	엄마가 듣기 싫은 소리(잔소리)를 할 때
18	친구들이 놀이에 끼워주지 않을 때
19	엄마나 아빠가 나에게 어떤 것(예: 그림 그린 것, 만든 것, 공부)을 못한다고 말할 때
20	친구들은 잘하는데 나는 못했다고 생각할 때
21	엄마나 아빠가 친구나 형제보다 내가 더 못한다고 말할 때
22	선생님이 나를 예뻐하지(사랑하지) 않을 때
23	엄마 · 아빠께 칭찬 받고 싶은데 칭찬받지 못할 때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면접은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10여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영유아의 면접은 어린이집별로 진행 되었으며 어린이집 1개소 당 면접기간은 3~4일간 진행되었다. 영유아 1인당 면접 소요시간은 보통 10~15분 정도였고 영유아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이 어릴수록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은 하루

20여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검사를 위해 반별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보육실외의 장소인 원장실에서 면접자가 영유아 한명씩을 대상으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자는 영유아에게 개별적으로 그림카드를 보여주면서 각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부를 물었다. 23가지 그림카드를 한 장씩 보여주면서 영유아의 대답에 따라 23개 항목의 검사지를 작성하였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대답한 경우는 검사지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음(0점)으로 체크하였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대답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크기가 다른 동그라미 세 개가 그려진 그림카드를 보여주며 느끼는 정도에 따라 동그라미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선택한 동그라미의 크기에 따라서 제일 작은 크기의 동그라미를 선택한 경우는 스트레스를 조금 받음(1점), 중간크기의 동그라미를 선택한 경우는 스트레스를 보통 받음(2점), 가장 큰 동그라미 그림을 선택한 경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3점)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였다. 일상적 스트레스 검사는 0점부터 3점까지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상적 스트레스의 점수는 1점부터 3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개별검사를 완료한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영유아의 일반적인 특성 및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한 연령,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시간부터 귀가하는 시간까지 하루 중 평균 재원시간,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닌 총 재원기간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개별검사와 질문지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유아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자료 분석

모든 자료에 대한 통계는 SPSS 17.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영유아의 변인별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Duncan 사후검증을 하였다.

Ⅲ. 결과 분석

1. 영유아의 연령과 성별, 출생순위, 부모의 동거여부에 따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영유아가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영유아의 일반적인 특성 즉, 연령과 성별, 출생순위, 부모의 동거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

먼저 영유아가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영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점수를 이원변량분석으로 비교하였다. 〈표 4〉에 의하면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는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주 효과가 발견되었다(F = 2.94, p < .05). 그러나 성별에 대한 주 효과와 성별 및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령과 성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연령	255.52	3	850.51	2.94*
성	677.45	1	677.45	2.34
연령 * 성	774.43	3	258.14	.89

*p < .05.

영유아가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0점에서 3점까지의 4점 척도로 볼 때 전체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점수는 1.20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점수는 스트레스를 보통 받는 2점의 수준보다 낮은 정도였고 중간 점수인 1.5점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연령별로 보면 만3세와 만4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가 만5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만2세 영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는 만3세, 만4세, 만5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와 차이가 없었다.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는 〈표 5〉와 같이 만5세 유아는 0.94(SD = 0.73), 만2세 영아는 1.11(SD = 0.71), 만4세 유아는 1.31(SD = 0.78), 만3세 유아는 1.38 (SD = 0.75)의 순이었다. 만3세와 만4세 유아가 만5세 유아보다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성별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는 남아가

〈표 5〉 영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 (N = 165)

구분		남아	여아	전체	F	
		$M(SD)$	$M(SD)$	$M(SD)$		
연령	만2세	1.34 (0.80)	0.86 (0.51)	1.11 (0.71)[ab]	3.58*	만5세 〈 만4세, 만3세
	만3세	1.38 (0.75)	1.37 (0.77)	1.38 (0.75)[b]		
	만4세	1.49 (0.70)	1.01 (0.84)	1.31 (0.78)[b]		
	만5세	0.98 (0.79)	0.92 (0.69)	0.94 (0.73)[a]		
	전체	1.29 (0.78)	1.06 (0.72)	1.20 (0.76)		

주.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p < .05.

1.29(*SD* = 0.78), 여아가 1.06(*SD* = 0.72)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성별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영유아의 일반적인 특성 중 출생에 따른 순위와 부모의 동거 여부에 따라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각각 일원변량 분석한 결과 출생순위(F = .079, p 〉 .05)와 부모의 동거여부(F = .748, p 〉 .05)에 따라 일상적 스트레스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유아의 출생순위와 부모의 동거여부는 각각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영유아의 연령이 영유아가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에 영향을 주었다. 연령에 따라서 영유아 중 만5세 유아가 만4세와 만3세의 유아보다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컸다. 그러나 영유아의 성별, 출생순위, 부모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린이집에 입소한 연령에 따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입소한 연령에 따라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영유아의 연령이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영유아의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영유아의 입소연령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영유아의 연령을 통제한 후 공변량 분석하였다. 입소연령은 어린이집의 반편성 구성에 따른 입소연령으로 만 1세 미만, 만 2세 미만, 만 3세 미만, 만 3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의 입소연령에 따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는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입소연령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의 공변량 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연령 (공변인)	2083.6	1	2083.63	7.05*
입소연령	1818.97	4	454.74	1.54
오차	47022.47	159	259.74	
합계	18851.5	165		

* p 〈 .05.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한 연령에 따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를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어린이집에 입소한 연령이 만1세 미만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는 1.08(*SD* = 0.62), 만1세부터 만2세 미만은 1.12(*SD* = 0.79), 만2세부터 만3세 미만은 1.13(*SD* = 0.77), 만3세 이상은 1.33(*SD* = 0.82)으로 나타났다.

〈표 7〉 입소연령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

(N = 165)

입소연령	만1세미만 (n = 32)	만1세-만2세 미만 (n = 53)	만2세-만3세 미만 (n = 47)	만3세이상 (n = 33)
	M(SD)	*M(SD)*	*M(SD)*	*M(SD)*
일상적 스트레스	1.08 (0.62)	1.12 (0.79)	1.13 (0.77)	1.33 (0.82)

3.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시간과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시간에 따라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영유아의 연령을 통제한 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시간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점수를 공변량 분석하였다.

재원시간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시간부터 귀가하는 시간까지로 어린이집에서 하루 중 보내는 시간이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따라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단축형, 오후 4~5시에 귀가하는 단축형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 귀가하는 종일제로 운영되고(서문희, 2010) 오후 7시 30분 이후 귀가하는 시간 연장형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하루 중 재원 시간은 부모의 근로시간에 따라 등하원이 이루어져 영유아 개개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시간을 운영유형과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6시간 이하,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루 중 재원시간에 따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이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시간에 따라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13, p 〈 .05).

〈표 8〉 재원시간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의 공변량 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연령 (공변인)	446.74	1	446.74	1.57
재원시간	3567.71	4	891.93	3.13*
오차	45273.72	159	284.74	
합계	66346.00	165		

* p 〈 .05.

영유아의 재원시간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표 9〉에서처럼 하루 재원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이상인 경우 간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는 하루 중 재원시간이 6시간 이하는 1.16(*SD* = 0.85), 7시간은 0.80(*SD* = 0.63), 8시간은 1.10(*SD* = 0.76), 9시간은 1.25(*SD* = 0.70), 10시간 이상은 1.49(*SD* = 0.73)로 나타났다. 하루 재원시간에 따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는 재원시간이 7시간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왔다. 다음으로는 재원시간이 8시간과 6시간 이하의 순으로 나왔고 9시간과 10시간 이상 재원하는 경우의 순으로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표 9〉 재원 시간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

(*N* = 165)

재원 시간	6시간 이하 (*n* = 30)	7시간 (*n* = 33)	8시간 (*n* = 37)	9시간 (*n* = 34)	10시간 이상 (*n* = 31)	7시간 < 8시간 < 6시간 이하 < 9시간 < 10시간 이상
	M(*SD*)	*M*(*SD*)	*M*(*SD*)	*M*(*SD*)	*M*(*SD*)	
일상적 스트레스	1.16[c] (0.85)	0.80[a] (0.63)	1.10[b] (0.76)	1.25[d] (0.70)	1.49[e] (0.73)	

주. a b c d e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p < .05$.

4.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기간과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기간에 따라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영유아의 연령을 통제한 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기간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점수를 공변량 분석하였다. 재원기간은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하여 현재까지 다닌 기간으로 재원기간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10〉과 같이 재원기간에 따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재원기간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의 공변량 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연령(공변인)	58.41	1	58.41	.20
재원기간	2652.25	4	663.06	2.28
오차	46189.19	159	290.50	
합계	166346.0	165		

* $p < .05$.

어린이집에 재원 한 기간에 따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제시하면 〈표 11〉와 같다. 어린이집에 재원 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는 1.34(*SD* = 0.97),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은 1.16 (*SD* = 0.78),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은 1.34(*SD* = 0.67), 36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은 1.00(*SD* = 0.73), 48개월 이상은 0.80(*SD* = 0.63) 이었다.

〈표 11〉 재원기간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

(*N* = 165)

재원 기간	12개월 미만 (*n* = 18)	12-24개월 미만 (*n* = 36)	24-36개월 미만 (*n* = 52)	36-48개월 미만 (*n* = 38)	48개월 이상 (*n* = 21)
	M(*SD*)	*M*(*SD*)	*M*(*SD*)	*M*(*SD*)	*M*(*SD*)
일상적 스트레스	1.34 (0.97)	1.16 (0.78)	1.34 (0.67)	1.00 (0.73)	0.80 (0.63)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2세부터 만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우선 영유아의 연령과 성별 등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집 재원시간으로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한 연령과 하루 중 재원 하는 시간 그리고 어린이집에 재원한 기간에 따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일반적인 특성 중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영유아의 연령이었다.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는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영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 부모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서 만3세와 만4세가 만5세보다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높았다. 이는 영유아의 연령과 일상적 스트레스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김수미 외, 2007; 박소영, 문혁준, 2004; 박성혜, 2002)와 마찬가지의 결과로 영유아는 연령이 어릴수록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만2세 영아의 경우 다른 연령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 영아의 발달 특성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과 통제가능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진다(Compas, Maicame, & Fondacaro, 1988).

둘째,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한 연령에 따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가 가정과 부모의 품을 벗어나 어린이집 환경을 처음 접하는 시기가 현재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 어린이집에 입소한 연령은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중에서 입소연령과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언제 어린이집에 입소했는지는 현

재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는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어느 연령 시기에 입소하더라도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을 완화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보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집에 하루 중 재원 하는 시간에 따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하루 중 재원시간이 7시간, 8시간, 6시간 이하, 9시간, 10시간 이상인 경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6시간 이하 재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하루 중 재원 시간이 늘어날수록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반일반보다 종일반 유아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박성혜, 2002; 정효은, 하영례, 2009), 스트레스 행동도 증가하며(오경미, 2002; 진성아, 2006), 종일반 유아보다 시간 연장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이 더 많게 나타난 선행연구(김혜경 외, 2006)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동일한 반이라 하더라도 영유아에 따라 이른 등원 시간과 늦은 하원 시간으로 인해 하루 중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재원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영유아가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는 더 높아진다. 특히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재원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영유아들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들은 기관이나 타인에게 맡겨지는 시간이 길수록 귀가욕구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행동과 코티솔의 수치가 높아져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는 증가할 수 밖 에 없다(조혜선, 2001; 최정윤, 2008). 하루 중 재원 하는 시간에 따라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다는 결과는 점점 길어지는 보육시간이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게 한다.

넷째, 영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는 영유아의 재원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재원기간이 길면 스트레스 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송강숙, 곽수진, 김영희, 2008; Essa, 2003)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보육기간이 길수록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 한다는 선행연구(백경숙, 1997; 장혜정, 2003)와 어린이집에서의 초기 재원기간 동안 불안과 반사회적 행동의 반응이 나타나서 짧은 재원기간이 보육환경에 적응하는 영유아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연구(류경, 2000; 이현숙, 조혜진, 2009, 우현경, 홍용희, 1998)와도 대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재원한 기간에 따라 영유아가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영유아가 재원 초기부터 어린이집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 일과의 익숙함으로 인해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는 재원기간에 따라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하루의 시간이 길어져서 하루 중 재원시간의 양이 많아질 수 록 영유아가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는 높아진다. 이는 본래 보육의 목적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아침에 일찍 등원하고 저녁에 늦게 귀가하는 영유아들의 경우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하루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재원 하는 하루 시간의 양이 일상적 스트레스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보육시간을 부모의 장시간 근로시간에만 맞추어 연장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한다.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현 보육정책에서 시간 연장 보육 또는 24시간 보육과 같은 장시간 보육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일반화시키기 보다는 부모의 근로나 질병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대상만을 위해 제공 되도록 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양적 · 질적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시간 보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유아들을 위해서는 영유아들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과 같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환경 제공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 해주는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 즉, 높은 질적 수준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간 연장 보육프로그램과 24시간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보다 엄격한 품질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만2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를 면접 방식으로 일상적 스트레스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검사도구가 그림도구이긴 하였으나 만2세 영아를 대상으로 일상적 스트레스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어린 연령의 영아를 대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기본적인 질적 수준이 확보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본 연구였다. 따라서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제언으로 질적 수준이 낮은 어린이집과 질적 수준이 높은 어린이집을 비교하여 연구하여 질이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의 장시간 보육이 갖게 될 위험성을 예측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문적으로는 장시간 이루어지는 보육의 특성에 맞추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및 흥미를 고려한 시간 연장 보육프로그램, 야간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에서의 일상적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의 자극 없이 즐겁게 생활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영유아 보육의 목적 또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김수미(2007). 보육시설 이용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수미, 이숙(2007).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1**(2), 89-104.

김숙령(1997). 영유아기의 탁아경험과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사회 정서적 문제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2), 5-18.

김혜경, 류왕효(2006). 시간 연장 보육아동의 스트레스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45**, 207-225.

류경(2000). 보육시설 초기 적응과정의 영아행동 특징과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자, 최정윤, 권연희, 김지현(2007). 보육의 특성에 따른 유아의 코티솔 패턴. **아동학회지, 28**(6), 201-215.

박성혜(200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변인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소영, 문혁준(2004). 유아 스트레스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2), 1-14.

박화윤, 안라리, 하양승(1998). 종일제와 반일제 유치원 프로그램의 유아스트레스 행동. **아동교육연구, 18**(2), 135-155.

배성희(2009). 시간 연장 보육에서 만2세 영아들이 겪는 어려움과 적응과정.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경숙(1997). 영유아의 종일제 보육시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11a). **2010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1b). **아이사랑플랜 2011년 시행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1c). **2011년 보육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서문희(2010).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지원체제 개편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송강숙, 곽수진, 김영희(2008). 유치원 운영시간, 부모의 학습관여, 유아의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2**(2), 35-51.

오경미(2002).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유치원의 운영시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현경, 홍용희(1998). 걸음마기 유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 **교육과학연구, 27**, 29-50.

윤영현(2006).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염현경(1998).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윤경(1992).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학급크기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활동형태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14**(2), 153-168.

이현숙, 조혜진(2009). 영아의 개인 변인과 어린이집의 환경 변인이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2), 179-192.

이희선(1994).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광, 12**, 23-40.

장혜정(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초기적응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효은, 하영례(2009). 기관변인에 따른 5세 유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3**(3), 1-13.

조혜선(2001). 어리이집 영·유아의 집에 가고 싶은 행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성아(2006). 유치원의 반일반, 종일반 운영에 따른 5세아의 스트레스 행동차이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윤(2008). 보육시설 아동의 코티솔 수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Burts, D. C., Hart, H., Charlesworth, R., & Kirk, L.(1990). A comparison of frequencies of stress behavior in kindergarten children in classroom with developmentally appropriate versus developmentally inappropriate instructional practi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407-423.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M.(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211.

Essa, E.(2003). *A practice guide to solving preschool behavior problems*. Canada: Tomson.

Greenspan, S. I.(2003). Child care research: A clinic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74*(4), 1064-1068.

Marion, M.(1995). *Guidance of young children, Englewood*

Cliffs. NJ: Merrill.

Nationa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0). Characteristic and quality of child care for toddlers and preschooler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4*, 116-135.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3). Does amount of time spent in child care predict semiemotiona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74*(4), 976-1005.

Parfenoff, S. H., & Jose, P. E.(1989). Measuring daily stress in childre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14 206.

Sher, L.(2003). Daily Hassles, cortisol, and the pathogenesis of depression. *Medical Hypotheses*, *62*(2), 198-202.

Sims, M., Guilfoyle, A., & Parry, T. S.(2006). Children's cortisol levels and quality of child care provision.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2*(4), 453-466.

Vandell, D., & Corasaniti, H.(1990). Child care and the family: Complex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49*, 23-37.

Wallen, J.(1993). Protecting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in dangerous neighborhood. *Children Today*, *22*(3). 24-27.

Watamura, S. E.(2006). Cortisol patterns at home and child care: Afternoon differences and evening recovery in children attending high quality full day center based care. **삼성복지재단 제 15회 국제 학술대회 건강한 환경, 유능한 어린이**, 87-109.

Watamura, S. E., Donzella, B., Alwin, J., & Gunnar, M. R.(2003). Morning-to-afternoon increases in cortisol concentrations for infants and toddlers at child care: Age differences and behavioral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74*(4), 1006-1020.

접 수 일 : 2011년 8월 31일
심사시작일 : 2011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0월 31일